



국립공원 탐방서비스현장

저희 공단 임직원 모두는 국립공원이 우리나라의 자연, 생태계와 자연 및 문화경관 등을 대표하는 지역으로서 후손에 물려주어야 할 소중한 유산임을 인식하고 국민 여러분의 여가생활과 정서함양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자세로 공원관리에 임할 것을 약속합니다.

- 국립공원내 다양한 야생생물과 수려한 자연경관, 유구한 문화유적 등을 온전히 보전함으로써 자연과 문화가 어우러진 탐방환경을 조성 하겠습니다.
- 자연생태계의 질서를 유지 회복하는 범위 내에서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고 공원마다 특징있는 탐방서비스를 발굴하여 제공 하겠습니다.
- 자라나는 학생들이 자연을 체험하고 역사와 문화를 배울 수 있는 체험학습공간을 마련하겠습니다.
- 국민들이 공원관리를 실제 경험하고 국립공원의 소중함을 느낄수 있는 국민참여의 기회를 열어 놓겠습니다.
- 인터넷을 통해서 국립공원 탐방에 필요한 정보는 물론 풍부한 영상과 학습자료를 제공함으로써 정보화 시대에 부응하는 사이버 탐방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저희 공단 임직원 모두는 국립공원탐방서비스현장을 이행함으로써 국민 모두가 유익한 공원탐방을 할 수 있도록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국립공원이란?

국립공원은 우리나라의 자연생태계나 자연 및 문화경관을 대표할만한 지역으로서, 이 지역의 보호와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해 국가가 지정·관리하는 곳이다.

1967년 지리산을 최초로 지정한 이후 현재 20개소가 지정되어 있으며 국토 육상면적의 3.7%가 보호받고 있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은 환경부 산하기관으로써 전문적인 국립공원 관리를 위해 1987년에 설립되었으며, 한라산과 경주국립공원을 제외한 18개 국립공원(육상공원 14개, 해상공원 4개)을 관리하고 있다.

국립공원관리공단 비전은 『자연보전과 고객만족을 실현하는 국가최고의 공원관리전문기관』이다.

☘ 국립공원 지정현황 ☘

지정 순위	공원명	위 치	공 원 구 역		비 고
			년 월 일	면 적	
계				6,579.85	육상: 3,898.948 해상: 2,680.902
1	지 리 산	경남, 전남·북	67.12.29	471.758	
2	경 주	경북	68.12.31	138.715	
3	계 룡 산	충남, 대전	68.12.31	64.683	
4	한려해상	전남, 경남	68.12.31	545.627	해상 395.479
5	설 악 산	강원	70.03.24	398.539	
6	속 리 산	충북, 경북	70.03.24	274.541	
7	한 라 산	제주	70.06.24	153.386	
8	내 장 산	전남·북	71.11.17	81.715	
9	가 야 산	경남·북	72.10.13	77.074	
10	덕 유 산	전북, 경남	75.02.01	231.65	
11	오 대 산	강원	75.02.01	303.929	
12	주 왕 산	경북	76.03.30	107.425	
13	태안해안	충남	78.10.20	326.574	해상 289.543
14	다도해상	전남	81.12.23	2,321.51	해상 1,986.684
15	북 한 산	서울, 경기	83.04.02	79.916	
16	치 악 산	강원	84.12.31	181.631	
17	월 악 산	충북, 경북	84.12.31	287.977	
18	소 백 산	충북, 경북	87.12.14	322.383	
19	변산반도	전북	88.06.11	154.715	해상 9.196
20	월 출 산	전남	88.06.11	56.100	

I. 오대산국립공원 소개

1. 일반현황

가. 연혁

- 1970. 1. 10. 소금강 명승지 지정(문공부 제1호)
- 1975. 2. 1. 국립공원 지정(건설부 공고 제24호)
- 1976. 3. 5. 공원관리사무소 개소(강원도 사업소)
- 1976. 5. 17. 공원계획 결정공고(건설부 공고 제51호)
- 1987. 7. 1. 국립공원관리공단 설립
- 1987. 8. 5. 국립공원관리공단 오대산사무소 개소
- 2003. 8. 30. 오대산국립공원 구역변경 결정(환경부 고시 제2003-145호)

나. 오대산 이름의 유래

오대산의 명칭에 대한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오대산은 중국 산서성 청량산의 별칭으로 신라시대 자장율사가 당나라 유학 당시 공부했던 곳이다. 그가 귀국하여 전국을 순례하던 중 태백산맥의 한 가운데 있는 산의 형세를 보고 중국 오대산과 너무나 흡사하여 이 산을 오대산이라 이름 붙였다고 한다.

또 다른 설로는 다섯 개의 높은 봉우리(비로봉, 호령봉, 상왕봉, 두로봉, 동대산)가 병풍처럼 감싸고 있다 하고, 다섯 개의 사찰(동대, 서대, 남대, 북대, 중대)로 이루어져 있다하여 오대산이라 불리게 되었다고 한다.

다. 오대산의 지형과 기후

오대산 국립공원은 우리나라 산줄기의 대간을 이루는 태백산맥의 중간에 위치하고 있으며, 1,563m의 비로봉을 주봉으로 1,000m 내외의 봉우리가 다수 자리하고 있는 고지대이다. 내륙성기후 특성을 보이는 월정사지역과 동해와 인접한 해안기후 특성을 보이는 소금강지역으로 구분되는 오대산은 1975년 2월 1일 우리나라 11번째로 지정되었으며, 행정구역상 강릉시, 홍천군, 평창군 3개의 시·군에 걸쳐 그 면적이 303.929km에 달한다.

2. 공원자원

가. 경관

오대산국립공원은 비로봉, 상왕봉, 호령봉, 두로봉, 노인봉 등 산악경관과 소금강 계곡의 소(沼)와 담(潭), 폭포, 암벽 등 절리에 의하여 형성된 경관으로 구분된다.

♣ 오대산국립공원 주요 경관자원 ♣

구분	경관자원
산봉	비로봉(1,563m), 상왕봉(1,491m), 두로봉(1,421m) 동대산(1,433m), 장군봉(1,140m), 노인봉(1,338m) 백마봉(1,094m), 황병산(1,407m), 매봉(1,173m) 호령봉(1,561m)
기암	삼선암, 식당암, 귀면암, 망군대, 만물상 등
계곡	신선골, 동피골, 조개골, 개자니골, 을수골, 북대골, 사문다지, 안개자니, 구룡폭 등
폭포	구룡, 낙영, 광폭, 삼폭, 용수, 비봉, 세심, 청심 등
약수	방아다리
기타	금강연, 무릉계, 십자소, 연화담, 선녀탕 등

나. 야생 동·식물

오대산국립공원은 백두대간 및 차령산맥의 교차점에 위치한 지역으로 해발 1,000m 이상의 고산지역과 많은 계곡들로 원시적 자연생태계를 유지하고 있어 생물종 다양성이 풍부하고 호령봉, 비로봉, 상왕봉, 두로봉을 잇는 능선의 주목 군락지, 월정사·상원사를 중심으로 한 전나무 군락지 및 천연기념물인 수달 등 다양한 동·식물 자원을 보유하고 있다.

◎ 식물자원 약 988종

- 진부애기나리, 얼레지, 금강초롱, 노랑무늬붓꽃, 천마, 주목 등

◎ 동물자원 약 1,952종 : 포유류 19종, 조류 99종, 곤충류 1,788종, 어류 26종, 파충류 8종, 양서류 12종, 고등균류(버섯) 약 250종

- 멧돼지, 다람쥐, 청설모, 수달, 황조롱이, 붉은배새매, 호랑지빠귀, 사슴벌레, 작은멧쟁이나비, 꼬리치레도롱뇽, 누룩뱀, 금강모치, 쉬리, 노랑망태버섯, 흰털잎솔잔버섯, 달갈버섯

◎ 천연기념물 1종

- 소금강 삼산리 소나무(제350호)



얼레지



노랑무늬붓꽃



진부애기나리



수달



다람쥐



황조롱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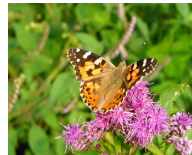
노랑망태버섯



금강모치



꼬리치레도롱뇽



작은멧쟁이나비



사슴벌레



하늘배새매

다. 역사·문화

공원내 문화자원은 국보 4점, 보물 4점, 지방문화재 5점, 사적 1개소, 명승지 1개소 등이 있는데 공원내 문화재는 소유자(사찰)가 문화재보호법에 의거 문화재관람료를 징수하여 해당 문화재를 자체적으로 유지·보수하고 있다.

< 국보 >

월정사 8각9층석탑

석가여래의 사리를 봉안하였다 하여 일명 사리탑이라고 부르며 자장율사가 건조하여 불사리 37과를 봉안하고 있다.

연꽃 무늬로 치장한 이층 기단과 균등하고 우아한 조형미를 갖춘 탑신 그리고 완벽한 형태의 금동장식으로 장엄한 상륜부 등이 아름답게 조화를 이룬 뛰어난 석탑이다. 고려시대 초기인 10세기경의 작품이며 국보 제48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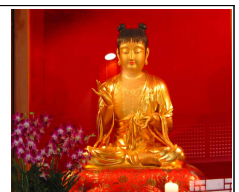
상원사 동종(국보 제36호)

현재 전해지는 범종 가운데 가장 오래된 것으로 악기를 연주하면서 천의를 흘날리며 날고 있는 주악비천상이 조각되어 있다.



상원사 목조문수동자좌상(국보 제221호)

문수동자에 의해 세조가 피부병을 치료 했다는데 의거하여 세조의 딸인 의숙공주와 남편 정현조 부부가 조성하였다.



상원사 중창권선문(국보 제292호)

왕의 수복을 빌기 위해 상원사에 중창을 발원하니 이에 세조가 쌀, 배 등을 하사한다는 취지를 밝힌 글의 문서이다.



< 보물 >

석조보살좌상(보물 제139호)

일명 약왕보살(희견보살)이라고도 하며, 오른쪽 무릎을 꿇은 것은 고대 인도의 관습에 따라 자신을 낮추고 스승에게 최상의 존경을 표시하기 위한 자세를 뜻한다고 한다. 월정사에 있는 석조보살좌상은 부처님의 진신사리를 모신 8각9층석탑을 바라보고 있으며, 이 보살상은 강원도 일대에서만 볼수 있는 특이한 형태로 조성되어 있다. 현재 성보박물관에 소장.



월인석보(보물 제745호)

1475년(세조3년)에 왕세자였던 도원군이 죽자 임금은 이를 애통히 여겨 부왕과 죽은 아들의 명복을 빌기 위해 제작하였다.



목조문수동자좌상 복장유물(보물 제793호)

1984년 7월 상원사 목조문수동자좌상에서 발견된 23점의 일괄 유물이다. 의숙공주발원문, 문수상등중수발원문, 백지묵서진언집, 두루마리 대방광불화엄경, 오대진언, 묘법 연화경, 대방광원각수다라요의경, 육경합부, 명주적삼, 생명주적삼, 금동제사리함, 사리, 수정구슬, 백색수정사리병, 세조 어의를 쓴 명주보자기 등이다.



8각9층석탑내 발견 유물(보물 제1375호)

1970년 석탑을 해체하는 과정에서 은제도금여래입상을 비롯해 총 9종 12점의 유물이 발견되어 이를 보물로 지정하였다. 성보박물관에 전시.



3. 탐방시설

가. 자연관찰로

① 전나무숲 자연관찰로

오대산국립공원에는 약 1km에 걸쳐 전나무숲이 펼쳐져 있는데 우리나라 3대 전나무숲길 중 대표적인 곳으로 손꼽힌다.

②소금강 자연관찰로

소금강 자연관찰로는 소금강지구에 위치하고 있으며, 총길이 2.2km 구간으로 해설운영시 약 2시간 정도 소요된다. 이곳에서는 여러 가지 모양의 지형경관과 바위 등 다양한 기암괴석과 야생 동·식물들을 만날 수 있다.

나. 탐방지원센터(시인마을)

월정탐방지원센터

상원사탐방지원센터

방아다리탐방지원센터

내면탐방지원센터

소금강탐방지원센터

II. 각 지구별 고객접점 탐방

1. 월정사지구

가. 경관

오대산은 해발 1,563m의 주봉인 비로봉을 중심으로 남쪽에 호령봉, 북동으로 상왕봉, 두로봉, 동대산의 다섯 봉우리와 그 사이에 많은 사찰들로 구성되어 있다.

고봉이 연이은 거대한 산줄기는 고산답게 웅장하고 골이 깊어 산 전체가 울창한 산림으로 뒤덮여 있고, 토질이 중후하고 비옥하여 산림자원이 풍부하고 겨울철에는 강설량이 많고 산세가 완만하며 여성스러워 모산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천년의 숲으로 불리우는 오대산국립공원 전나무숲길은 일주문에서 월정사 입구까지 약 1km의 구간으로, 사계절 아름다움을 자랑하는 곳이다. 일주문에서 전나무숲길로 들어서면 숲길 양쪽으로 짙은 키 큰 전나무들이 반겨주며, 성황각을 지나면서 구간구간 또 다른 숲 풍경이 연출된다.

봄이 되면서 복수초, 얼레지, 바람꽃 등 봄을 알리는 수많은 야생화가 여기저기서 피어나기 시작하며, 산림욕 효과가 특히 탁월한 싱그러운 여름 숲, 그리고 가을 정취가 물씬 풍기는 가을 숲과, 설경이 압권인 겨울까지 어느 계절하나 아름답지 않은 시기가 없다.

숲길을 거닐다 보면 다람쥐도 쉽게 만날 수 있는데, 특히 가을이면 분주히 먹이를 나르는 다람쥐의 모습을 보는 아이들은 시선을 거둘 줄 모른다.

나. 사찰

① 월정사



월정사는 대한불교조계종 제4교구 본사로써 강원 남부 60여 개 사찰을 총괄하는 중심사찰이다.

동대 만월산을 뒤로하고 앞으로는 금강연이 마주하는 울창한 침엽수림에 둘러싸여 아늑하고 햇빛이 모여들어 환하게 감싸 주고 있다.

월정사는 신라시대 선덕여왕 12년(643년)에 자장율사에 의해 창건되었다.

자장율사가 중국 오대산에서 기도를 하던 중에 문수보살을 친견한 후 신라에 돌아오자마자 문수보살이 산다고 하는 이곳 오대산에 들어와 정진하였는데 그때부터 월정사는 오대산 깊은 계곡에 터를 잡게 되었다.

1400여년을 이어온 긴 역사만큼 월정사는 수난의 시간들도 많았는데 지금까지 모두 세 번에 걸친 화재로 인하여 소장 문화재와 자료들이 재가 되어버리는 비운을 맞기도 하였다.

지금의 월정사는 1964년 만화스님이 적광전을 중건하고 그 뒤로 현해스님에 이르기까지 꾸준히 중건하여 오늘날의 월정사 모습을 이루었다.

※ 월정사 이름의 유래

월정사라 불리게 된 이유에는 여러 가지 설이 있다.

첫 번째 설은 오대산 동대에 해당하는 만월산의 월 ‘月’ 자와 서대 수정암의 정 ‘情’ 자가 합해져 월정사라 한다는 설이 있다.

또 다른 설은 월정사가 들어서 있는 자리가 달의 형국을 이루기 때문이라는 의견도 있고, 동대 만월산의 정기가 모인 곳에 자리잡고 있기 때문에 월정사라 이름 지었다는 설도 있다.

월정사로 이어지는 세 개의 문

일주문



절에 들어설 때 첫 번째 만나는 문으로 여기부터 절 경내임을 알리는 문이다. 모든 중생이 자유롭게 드나들라는 의미로 문을 닫지 않고 기둥을 양쪽에 하나씩 세워 문을 지탱하는 구조에서 일주문이라는 이름이 유래하였으나 두 기둥을 일직선상에 세웠다는 의미도 있다. 월정대가람(月情大伽藍)-현판은 탄허스님의 친필이다.

천왕문

천왕문은 사천왕문이라고도 하며 동서남북 각 방향에서 불법을 수호하는 외호신장을 모신 전각이다.

동방지국천왕: 비파를 들고 음악으로서 어둠속의 중생을 인도

서방광목천왕: 용과 여의주를 들고 만물소생을 의미

남방증장천왕: 검을 들고 악을 응징

북방다문천왕: 삼지창과 보탑을 들었고 악을 구도하여 열반의 세계로 인도



금강루(금강문)



금강문은 마지막 세 번째 문으로 나라연금강역사와 밀적금강역사가 좌우에서 모든 악귀를 물리치고 부처님과 불법을 강한 힘과 지혜로 수호하는 역할을 한다.

나라연금강역사 : 힘이 코끼리의 백만 배나 된다고 하여 인왕(仁王), 입을 “아” 하고 벌리고 있다하여 아금강역사라고도 한다.

밀적금강역사 : 부처님을 호위하는 야차왕, 부처님 비밀의 으뜸이 되기 때문에 비밀주보살이라고도 하고, 입을 “음” 하고 다물고 있다하여 음금강역사라고도 한다.

적광전



정면 다섯 칸, 측면 네 칸의 매우 큰 법당으로, 팔작지붕에 다포계 양식으로 갖가지 문양이 어우러진 단청은 매우 화려하다.

외부기둥 18개 중 16개는 오대산에서 자생하는 소나무이고, 2개는 괴목이며, 내부기둥 10개는 전나무로 만들었다.

고려, 조선시대에 두 번의 화재 이후 7불을 모신 칠불보전(七佛寶殿)이 자리하고 있었으나, 6.25 전쟁 때 아군에 의해 소실되었다가

다시 중건되었다.

대체로 적광전에는 비로자나부처님을 모시는 것이 통례이나, 이곳 적광전은 그 통례를 깨고 석굴암의 불상 형태를 그대로 따른 석가모니 부처님을 모시고 있다. 이는 1964년 만화스님 법당 중창당시에는 현판이 대웅전이었던가, 1950년대 탄허스님의 오대산수도원(1956년 월정사에 오대산수도원을 설립하고 2년 가까이 진행되다 겨울 비구와 대처승의 싸움과 재정이 극도로 악화되어 1958년 문닫고 말았다.)을 기념하기 위해 결사의 주주 경전이었던 화엄경의 주불인 비로자나불을 모신다는 의미로 탄허스님의 친필인 적광전으로 고쳐 현판을 달았다. 또한 주변에 협시보살이 없는 점이 이채롭다.



적광전 뒷면으로 그려진 벽화는 10개의 화폭에 인간의 본성을 찾아 깨달음에 이르는 과정을 동자가 소를 찾아 얻은 후 결국 부처가 되기까지의 이야기를 그린 심우도가 그려져 있다.

월정사8각9층석탑



세 개의 문을 지나 경내로 들어서면 가운데로 적광전 앞에 팔각구층석탑이 있다. 팔각구층석탑은 다각다층 형식인 고려 초기의 대표적인 석탑으로 연꽃무늬로 치장한 이층 기단과 균등하고 우아한 조형미를 갖춘 탑신 그리고 완벽한 형태의 금동장식으로 장엄한 상륜부 등이 아름답게 조화를 이룬 뛰어난 석탑이다.

여러번의 화재와 6.25 전쟁 때 주변이 다 불타 없어지고 이 팔각구층석탑만이 남아있다가 1970년 해체보수를 통하여 1층 2층 6층 9층을 새 돌로 교체했으며 그 당시에 1층과 5층에서 총 12점의 사리구가 발견이 되었는데 은제의 불상 1구와 4점의 청동 거울, 금동향합과 향주머니, 전신사리경 등의 총 12점의 유물들은 2003년 6월 보물로 일괄 지정되어 성보박물관에서 전시하고 있다. 국보 제 48호.

석조보살좌상

탑 외에 약간 빈듯한 공간은 이전에 팔각구층석탑을 향해서 정중하게 무릎을 꿇고 왼쪽다리를 세운 채 공양하는 듯한 보살상이 있었는데 이 보살상이 바로 석조보살좌상이다.

이 보살상은 약왕보살 또는 희견보살로 천이백년 동안 향을 먹고 바른 후 자신의 몸을 태워 공양 하였고, 오른쪽 무릎을 꿇은 것은 고대 인도의 관습에 따라 자신을 낮추고 스승에게 최상의 존경을 표시하기 위한 것으로 눈높이가 석탑의 5층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이곳에서 은제여래입상이 발견되었다고 한다. 또한 2000년 8월 석조보살좌상 보수 공사 당시 지하 1m 아래에서 3부분으로 구성된 연꽃 대좌가 발견되어 큰 관심을 받고 있는데 아쉽게도 심한 마모로 인해 현재 성보박물관에서 전시하고 있다.



수광전



수광전은 서방 극락세계에 살면서 중생에게 자비를 베푸는 아미타 부처님과 협시보살로 지혜로서 중생을 번뇌의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는 관세음보살과 지혜의 광명으로 모든 중생을 널리 비추어 끝없는 힘을 얻게 하는 대세지보살이 있으며 오른쪽 중단에는 중생을 구제하여 극락으로 인도하는 지장보살을 모셨다. 적광전에 비해 작지만 서민들을 위한 기도처로 여느 부처보다 화려하다. 또 극락왕생을 위해 하얀 연등을 달고 왼쪽으로 명단을 달아 49제를 지내는 불자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다.

삼성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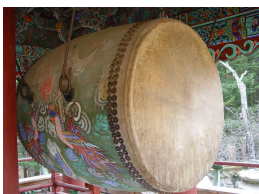
삼성각은 독성 나반존자, 칠성신, 산신을 함께 모신 곳이다. 독성나반존자는 남인도 천태산에서 홀로 선정을 닦아 깨달은 성자로 우리나라에서는 단군을 신격화한 것으로 신앙되고 있다. 칠성님은 본디 중국에서 유입된 도교신앙의 신으로 불두칠성의 별자리를 신격화한 것으로 한국에 들어와 토착화 되었다. 처음에는 약사(藥師)신앙과 결합되었다가 조선 중기 이후 수명신의 본디 모습이 강조되어 병자나 자식날기를 기원하는 사람들의 신앙이 되었다. 우리나라에는 산에 호랑이가 많았으며 산을 주재하는 산악신이 있다고 믿었다. 산신님의 다른 모습은 호랑이라고 믿었으며 주로 호랑이와 같이 표현된다. 이는 모두 불교가 들어오면서 호법신장(護法神將)의 하나로 흡수된 것으로 불교의 포용력과 흡수력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범종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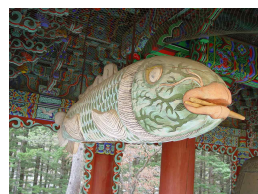
범종루는 북, 종, 목어, 운판 등 사물(四物)을 보관하는 곳이다. 새벽예불과 저녁예불 하루에 두 번 두드린다. 북은 땅위에 걸어 다니는 모든 중생을, 종은 천상과 지옥의 중생을 위해 친다. 이 종소리를 들으면 지옥의 옥졸들이 지옥 중생들을 괴롭히다가 잠깐 쉬다고 한다. 목어는 물고기 모양으로 나무의 속을 파서 만들었으며 물 속에서 사는 중생들을 위해 두드린다. 운판은 청동이나 철로 만든 구름 모양의 넓은 판인데, 날아다니는 새와 영혼들이 이 소리를 듣고 해탈하라고 친다.



범고



범종



목어



운판

② 상원사

월정사에서 서북쪽으로 9킬로미터쯤 오르면 오대산 비로봉으로 올라가는 중턱에 상원사가 있다.

상원사는 월정사의 끝절(말사)로 6.25 전쟁때 오대산에서 불타지 않은 유일한 절이다.

옛 이름은 진여원(眞如院)이고, 신라 705년 성덕왕때 창건되었다. 자장율사가 개산한 뒤로 보천과 효명태자가 오대산에 들어와 수도 하였는데 효명태자가 훗날 성덕왕이 되어 상원사를 창건하였다.

조선시대에 들어서는 척불정책 속에 전국의 사찰이 황폐해졌지만 태종과 세조의 원찰이 되는 등 발전하게 된다.

또한 세조는 문수보살을 친견하고 나서 병이 나았고, 상원사 참배 중에 고양이의 도움으로 목숨을 건진 일화로 상원사와 깊은 인연을 맺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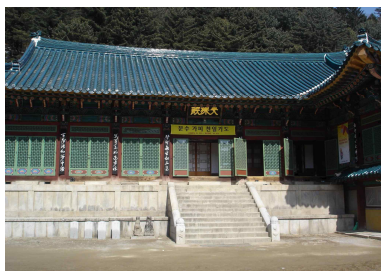
그 후로부터 상원사는 여러차례 중창을 거듭하다 1946년 화재로 전소 되었다가 1947년 다시 중창되었고 6.25전쟁으로 오대산의 모든 사찰이 불타 없어졌지만 상원사 만큼은 한암스님의 기지로 참화를 피할 수 있었다.



※ 상원사 이름의 유래

- 상원사 아래에는 과거 큰스님들(방한암, 탄허, 만화스님)의 사리를 모신 부도탑이 있는데 이곳이 옛날 진여원이 있던 자리로서 세월이 흘러 진여원이 사라지고 그 자리 위쪽에 절을 세웠다고 하여 상원사라고 한다.

문수전



청량선원(淸涼禪院)은 오대산을 다른 이름으로 청량산이라고도 하는데서 유래되었는데 문수보살이 상주하는 곳이다.

이 선원은 조선시대에 신미대사의 발원에 따라 세조가 상원사를 왕실의 원당을 삼으려고 학열스님에게 친히 불사를 주관하게 하여 세조 11년(1465년)에 공사를 시작해 이듬해 동서불전을 비롯해 누각, 나한전, 청련당, 승당, 선원 등을 건립하였으나 이 법당은 1946년 실화로 전소되자 1947년 월정사 주지 이종욱스님이 금강산 마하연(금강산에 있는 절, 의상대사 창건)의 건물을 본떠 지었다.

6.25전쟁 때 군인들이 법당을 불 태우려하자 방한암스님이 목숨을 내걸어 지킨 것이 유명한 일화가 있다. 법당 안에는 세조 때 조성한 목조문수동자좌상, 문수보살상과 서대에서 옮겨온 대세지보살이 봉안되어 있다. 현재는 정념스님이 청량선원을 불사하여 문수전으로 불리고 있다.

문수동자좌상

세조가 직접 보았다는 문수동자의 모습을 조각하게 하니 이 목각상이 바로 목조문수동자좌상이다.

1466년 세조의 딸인 의숙공주와 남편 정현조 부부가 봉안 하였고 상원사 법당에 모셔져 있으며 국보 제221호이다.

또한 1984년 7월 상원사 목조 문수동자좌상에서 발견된 23종의 복장유물은 보물 제793호로 일괄 지정.

문수동자좌상의 조성 발원문을 비롯해 대방광불화엄경, 묘법연화경 등의 불경과 금동제 사리함, 세조의 어의(御衣)를 쓴 명주 보자기 등이 있으며 월정사 성보박물관에서 전시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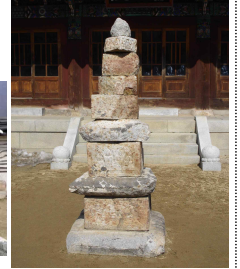


영산전

영산전은 정면 3칸, 측면 2칸의 맞배집으로 청량선원 뒤쪽에 있다. 1946년 화재가 났을때 유일하게 불길을 모면한 건물로 오대산 내에서 가장 오래된 전각이다. 안에는 석가 삼존상과 심육 나한상을 봉안, 부처님께서 영산회상에서 설법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어서 영산전이라 한다. 또 세조가 희사한 39함의 고려대장경이 보관되었다가 현재 월정사 성보박물관에서 전시(강원도 유형문화재 제54호)

영산전탑

영산전 탑은 원래 자리에 있던 것이 아니라 계곡에 있던 폐탑을 옮겨 놓은 것이라고도 하고 영산전 옆에서 출토됐다고도 전한다. 단층기단위에 세운 5층 석탑으로 추정되나 조성연대가 확인되지 않고 또 화강암 석재가 많이 없어서 알수 없다.



상원사 동종

현존하는 우리나라 동종 가운데 가장 오래 된 것으로 신라종의 백미로 이름난 성덕대왕신종 보다 45년 앞서 성덕왕 24년(725)에 만들어졌다. 국보 제36호. 이 종은 신라 성덕왕 24년(725년) 제작되어 안동의 문루에 걸려 있던 것을 조선 예종 1년(1469)에 이곳 상원사로 옮겨왔다. 죽령을 넘을 무렵 종이 움직이지 않아 애를 먹던 중 종유 하나를 떼어 안동으로 보내자 종이 수월하게 움직였다는 이야기가 전해진다. 그래서 동서남북 네 면에는 각각 9개씩 36개의 종유가 있어야 하지만 1개가 없어서 흥미롭다. 구름위에 무릎꿇고 악기를 연주하면서 천의를 흘날리는 비천상이 조각되어 있다.



고양이 석상

상원사 법당 앞에 있는 고양이 석상은 세조 임금과 관련 있다. 세조가 기도하러 상원사 법당을 들어가려는데 고양이가 나타나 세조의 옷소매를 물고 들어가지 못하게 하자 이를 괴이하게 여겨 법당 안팎을 샅샅이 뒤진 끝에 불상을 모신 탁자 밑에서 자객을 찾아냈다. 고양이의 도움으로 목숨을 건진 세조는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 묘전(猫田)을 하사했다. 그래서 사방 팔십 리 땅이 모두 상원사 땅이었다.

상원사 부도

관대걸이를 지나 올라가다 보면 오른쪽으로 상원사 부도가 있다. 방한암스님, 탄허스님, 만화스님 등 세분의 부도를 모셨고 옆에는 탐비가 있다. 이전에는 이곳이 진여원 자리였다고 한다.



관대걸이

상원사 주차장에서 상원사로 올라가는 길옆에 서 있는 것이 관대걸이다. 관대걸이는 세조 임금이 이곳에 의복을 벗어 걸고 목욕하다 문수동자를 만나 병이 나은 곳이다. 세조가 목욕하려고 의관을 벗어 이곳에 걸었다고 하여 ‘갓걸이’ 또는 ‘관대(冠帶) 걸이’ 라고 부른다.

③ 영감사와 사고지



신령스런 거울이라는 뜻의 영감사는 오대산 사고의 수호 사찰인 월정사가 사고에서 너무 떨어져 있으므로 실제로 암자격인 영감사에서 수호하기 때문에 일명 사고사라고도 한다.

오대산 사고는 조선왕조의 역대 실록을 보관하던 조선후기 5대 사고 중의 하나인 외사고(外史庫)로 임진왜란 때 춘추관·충주사고·성주사고에 보관된 역대의 실록이 불타버린 후 전주사고만이 남아 다시

재인쇄를 거쳐 보관하기 위해 태백산사고·마리산사고·묘향산사고·춘추관사고 등과 함께 지은 사고이다. 조선 선조36년(1606년) 물, 불, 바람의 삼재(三災)가 들지 않는 곳으로 알려진 이곳에 임진왜란 후 조선왕조 실록을 중간하고 초본을 오대산사고에 나눠 보관하였다.

그러나 일제강점기에 수탈로 동경제국대학 부속 도서관으로 옮겨졌다가 관동대지진으로 소실되어 버리고 나머지 소잔본 이십칠 책만이 돌아왔다.

사고 건물은 6·25전쟁 때 소실되고 터만 남았다가 1989년 선원보각(璿源寶閣)이 복원되었고, 최근에 사고가 복원되었다.

1963년 1월 21일 [사적](#) 제37호로 지정되었다.



④ 오대암자

- 동대 관음암

오대산의 동대에 일만의 관세음보살이 머물러 계신 곳이라 하여 관음암이라 불린다. 6.25전쟁 때 불타 없어져 1971년 새롭게 중건한 후, 1996년 월면 화상이 오래된 요사채를 헐고 새롭게 불사하였다.



- 서대 수정암

무량수불을 주불로 하여 일만의 대세지보살이 계신 곳으로 지금은 참선 수도하는 스님들의 토굴처로 이용되고 있다. 또한 수정암에 조금 못미처 한강의 발원지로 알려진 우통수가 있다.



- 남대 지장암

오대산의 남대에 일만의 지장보살이 계신 곳으로 현재 비구니 스님의 참선 도량으로 면모를 갖추고 있다. 인법당을 비롯하여 삼성각, 육화료, 요사채 등이 있으며 1995년 기린선원을 새롭게 중창하였다.



- 북대 상두암

상왕봉 중턱에 있는 북대는 멀리서 보면 코끼리 머리처럼 생겼다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석가모니불을 수반으로 한 오백나한(五百羅韓)을 모신 곳인데, 법당 안에는 1996년 하안거 결제전에 파키스탄 '라호르박물관'의 부처님 고행상을 본떠 만든 불상이 봉안되어 있다.



- 중대 사자암

비로자나불을 주불(主佛)로 하여 일만의 문수보살이 계시는 곳으로 상원사에서 적멸보궁 사이에 자리잡고 있다. 문수동자가 지혜로운 동물의 왕인 사자를 타고 있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다.



⑤ 적멸보궁



적멸보궁은 부처님 진신사리를 봉안한 곳이다.

모든 바깥 경계에 마음의 흔들림이 없는 번뇌가 없는 보배스런 궁전이라는 뜻이다.

오대산 적멸보궁은 신라시대 자장율사가 중국 오대산에서 기도하던 중 문수보살을 친견하고 얻은 석가모니 진신사리를 봉안한 불교의 성지이다. 부처님의 진신사리가 모셔져 있어 법당안에는 따로 불상을 조성하지 않고 불단만 설치하는 것이 특징이며 지방유형문화재 제28호로 지정되어 있다.

※ 5대 적멸보궁

오대산 상원사 적멸보궁, 사자산 법흥사 적멸보궁, 태백산 정암사 적멸보궁, 영취산 통도사 적멸보궁, 설악산 봉정암 적멸보궁

적멸보궁 바로 뒤에 84센티미터 높이의 개석(석실-돌함의 위에 덮는 돌)을 갖춘 비석 모양의 마애불탑이 세워져 있다.

앞면에는 단층기단 위에 세워진 5층 탑이 상륜부까지 양각되어 있다.



2. 진고개지구



진고개는 6번국도를 중심으로 진고개~동대산 코스와 노인봉으로 가는 코스로 나뉜다. 동대산 코스는 현재 특별보호구로 탐방이 불가능하다.

노인봉 남동쪽으로는 황병산(1,407m)이 있고, 북동쪽으로 긴 계곡이 청학천을 이룬다.

노인봉 정상은 거의 완만하고 기묘하게 생긴 화강암 봉우리가 우뚝 솟아 그 모습이 사계절을 두고 멀리서 바라보면 백발노인과 같이 보인다 하여 노인봉이라 불렀다 한다.



3. 방아다리지구



평창군 진부면 척천리 오대산국립공원내 위치한 방아다리 약수는 하늘에서 내려다보면 지형이 디딜방아의 모양을 닮았다하여 방아다리라 불리고 있다.

방아다리 약수는 1910년 경상남도에 사는 이모씨가 현몽으로 점지받아 발견된 곳으로 규산, 탄소, 산화철 등 철분성분이 많이 함유해 특 쓰는 것이 달지 않은 사이다 맛으로 위장병과 피부병에 효험이 있는 것으로 유명하며 한국의 명수(名水)로 꼽히는 약수다. 약수터에 이르는 약 200m의 전나무숲길 또한 인상적이다. 이는 육림가인 김익로씨의 끈질긴 노력의 결과로 알려져 있다. 일제 때 징병을 피해 오대산에 숨어든 김씨는 일본인들이 오대산 일대의 거목들을 무자비하게 베어내는 것을 보고 나무 심기에 평생을 바치기로 결심하여 오대산 뿐만아니라 강원도 산에 숲을 가꾸었다. 월정사 전나무숲길을 비롯해 방아다리 일대의 숲 역시 노력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다.

4. 내면지구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명산들 중에서는 드물게도 오대산 공원구역의 남북을 관통하는 도로가 개설돼 있는데 446번 지방도다. 오대산 월정사 밖 병안삼거리에서 시작하여 오대산을 관통해 흥천군 내면 명개리로 빠지는 길이다.

명산 오대산과 청정하천 내린천, 심산유곡 미산계곡을 모두 끼안은 셈이다. 명개리에서 잠시 56번 국도와 합류한 이 길은 내면 원당삼거리부터 다시 홀로 내린천을 따라가며 미산계곡을 가로지른다.

이 도로는 월정사에서 상원사까지 이르는 8km 구간과 관대삼거리 주차장에서 두로령 너머 명개까지 이어지는 18km 등 모두 30여km 달한다.

또한 446번 지방도로 30km쯤 이어지는 오대산 숲길은 전나무, 단풍나무, 참나무, 자작나무 등이 빽빽하게 들어찬 숲과 전망 좋은 산허리를 굽이굽이 돌아간다.

가을에는 온 산자락을 강렬한 원색으로 물들인 단풍 숲도 조망할 수 있다.

천년고찰 월정사와 문수신앙의 중심사찰 상원사, 그리고 너와지봉의 북대 미륵암을 둘러볼 수 있다는 점도 이 길만의 매력이다.

내면 명개삼거리에서 오른쪽으로 꺾어지면 곧장 56번 국도의 구룡령 고갯길에 들어선다. 강원도 흥천군 내면 명개리에 위치한 구룡령은 흥천과 양양을 이어주는 고개로 아홉마리 용이 승천하는 형상을 보인다고 해서 구룡령이란 이름이 붙여졌다 한다.

국립공원을 관통하는 명개까지의 비포장 도로는 7월부터 10월 사이의 성수기에 제한적으로 개방하여 차량으로 통행 할수 있다.

5. 소금강지구

청학동 소금강은 1970년 우리나라 명승지 1호로 지정되었으며, 그 규모가 웅장하면서도 수려함을 잃지 않은 계곡미로 이름이 높은 곳이다. 소금강은 노인봉에서 발원하는 연곡천의 지류인 청학천에 의해 형성된 12km의 계곡으로 소금강의 관문이다. 무릉계를 경계로 내·외 소금강으로 구분되어 있었으나 지금은 무릉계 안쪽 8km 남짓한 내소금강만을 일컫고 있다.

기암들의 모습이 금강산을 축소한 듯 아름답다하여 작은 금강산이라 일컬어 소금강이라 부르고 또 학의 날개를 펴는 형상이라 하여 일명 청학산이라고도 불리운다.

• 무릉계

소금강 입구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자리잡은 기암절벽의 폭포로 자연경관이 수려하여 무릉계라 불리워지고 있다. 옛날 옥황상제가 아름다운 경관에 취해 이곳에서 놀았다고 전한다.

• 십자소

청학산장과 연화담 사이에 위치한 소로 절벽이 열 ‘十’ 자를 이루며 깊게 갈라져 동서남북 사방에서 흘러드는 물이 모여들어 소를 형성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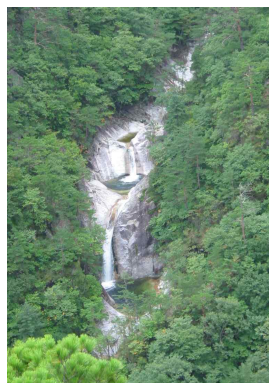


• 연화담

금강사 직전의 소로 소금강 주 계곡 물과 아미산성에서 내려온 물이 합쳐지는 곳이다. 옛날 관음사 승려들이 연꽃을 띄우며 놀았다고 하고, 7선녀가 내려와 목욕한 후 오른쪽 화장대에서 화장한 다음 하늘로 올랐다는 전설이 전해진다.

• 식당암

금강사를 지나 약 5분 정도 거리에 있으며 이곳은 마의태자가 군사를 조련시키면서 이곳에서 밥을 먹었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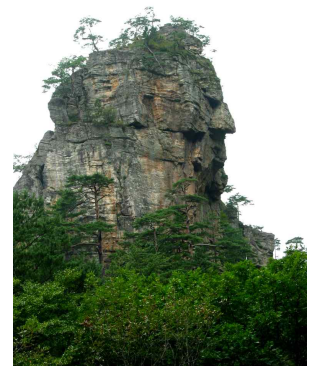
• 구룡폭포

소금강을 대표하는 폭포로 구룡소에서 나온 아홉 마리의 용이 폭포 하나씩을 차지했다는 전설이 전하는 명소이다. 여섯 번째 폭포는 군자폭(君子暴), 마지막 담은 상팔담(上八潭), 그리고 마지막 폭포 위의 구멍바위는 마의태자가 죄지은 군사를 사형시키던 사형대라 불린다.

• 만물상

세심폭포와 구룡폭포에서 노인봉으로 오르는 계곡을 따라 한참 오르면 만물상 바위가 벼랑 위에서 위용을 자랑하며 서 있다.

귀면암, 일월암 등 갖은 형상을 하고 있어 더욱 장관이며 노인봉에서 흐르는 계곡의 맑은 물은 물속에 또 하나의 만물상을 그려내고 있어 신비로움을 더하고 있다.



Ⅲ. 알고 갑시다!!

1. 공원탐방 준수사항

- 전지역 금연
- 지정탐방로 이외 출입제한
- 야영장 이외 지역에서 취사·야영 금지
- 주차금지 구간내 주차금지
- **특별보호구**
 - 2011년 말까지 입산통제, - 구간 : 진고개 ~ 동대산
- 야간산행
 - 탐방객의 안전과 산불방지 등 공원보호를 위하여 야간산행 제한(일몰후부터 일출 2시간 전)
- 산불방지 기간 중 개방탐방로
 - 개방탐방로 : 월정사 ~ 상원사 ~ 적멸보궁, 소금강입구 ~ 구룡폭포
 - 봄철 산불방지 기간 : 매년 3월 1일 ~ 5월 15일
 - 가을철 산불방지 기간 : 매년 11월 15일 ~ 12월 15일
- 상원사 ~ 내면 지방도(446호선) 차량 통제기간
 - 11월 15일 ~ 익년 6월 31일 (개방기간중 기상에 따라 수시 차량 통제 가능)
- 국립공원내 공원계획상 지정된 탐방로 이외 샛길 출입금지

◎ 탐방객이 지켜야 할 행동수칙 10가지

① 지정된 탐방로만 이용합니다.

- 탐방로가 아닌 지역에 출입하면 자연이 싫어하고 훼손되면 아프답니다.



② 탐방후 자기 쓰레기는 되가져 갑니다.

- 깨끗한 공원에는 야생 동·식물들이 살기 좋아요.



③ 화장실 등 시설물은 깨끗이 이용해주세요.

- 약수터, 화장실, 대피소 등 공원시설물은 우리 이웃을 위해 깨끗이 사용해주세요.



④ 자연사랑, 공원사랑

- 꽃이나 산나물 채취 등 자연을 훼손하면 야생 동·식물이 살 수 없어요.
- 우리 후손들도 아름다운 공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합시다.



⑤ 개국을 오염시키지 않습니다.

- 계곡에서 수영이나 설거지 등을 하지 않습니다.
- 속옷만 입고 계곡변에 앉아 있는 등 타인에게 혐오감을 주지 마세요.



⑥ 산불조심

- 한순간의 실수로 훼손된 자연을 복원하는데 100년이나 소요된대요.
- 공원내에서는 흡연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⑦ 공원내에서는 조용이

- 자연은 시끄러운 소리를 싫어합니다.
- 큰소리로 떠들면 동·식물들이 매우 불안해 합니다.



⑧ 애완동물을 데려오지 마세요.

- 생태계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애완동물은 집에 두고 오세요.



⑨ 지정된 장소 밖에서는 취사·야영을 하지 않습니다.

- 취사·야영은 지정된 장소에서만 하세요.
- 백사장에서 모닥불 등을 피우지 않습니다.



⑩ 공원탐방은 약속입니다.

- 대피소 이용 및 자연해설 프로그램 참가는 사전 예약을 해주세요.



2-1. 금지 및 제한행위

가. 국립공원내에서의 금지행위(자연공원법 제27조)

- ① 국립공원의 형상을 해하거나 공원시설을 훼손하는 행위
- ② 국립공원내 나무를 말라죽게 하는 행위
- ③ 국립공원내에서 야생동물을 잡기 위하여 화약류, 덫, 올무 또는 함정을 설치하거나 유독물, 농약을 뿌리는 행위
- ④ 공원관리청의 허가없이 야생동물을 포획하거나 총 또는 석총을 휴대, 그물을 설치하는 행위
- ⑤ 국립공원내 지정된 장소 밖에서 상행위
- ⑥ 국립공원내 지정된 장소 밖에서 야영행위
- ⑦ 국립공원내 지정된 장소 밖에서 주차행위
- ⑧ 국립공원내 지정된 장소 밖에서의 취사행위
- ⑨ 국립공원내 오물 또는 폐기물을 함부로 버리거나 심한 악취를 나게하는 등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
- ⑩ 공원생태계를 교란시킬수 있는 외래동물을 놓아 기르는 행위

나. 국립공원내에서의 출입금지행위(자연공원법 제28조)

- ① 자연휴식년제를 출입하는 행위
- ② 산불방지기간에 통제탐방로(등산로)를 출입하는 행위
- ③ 국립공원내 공원계획상 탐방로(등산로)가 아닌 비탐방로(등산로) 및 산림내를 허가없이 출입하는 행위
- ④ 자연공원법에 의하여 제한되거나 금지된 지역을 출입하거나 차량의 통행을 하는 행위

다. 국립공원내에서의 제한(금지)행위(자연공원법 제29조)

- ① 국립공원내에서 사행행위와 이와 유사한 행위
- ② 자연자원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톱, 도끼 등의 도구를 지니고 입장하는 행위
- ③ 소음을 유발할 수 있는 도구를 지니고 입장하는 행위
- ④ 자연생태계에 영향을 미칠수 있는 개, 고양이 등 동물을 데리고 입장하는 행위
- ⑤ 공원관리청이 정하는 지역에서의 인화물질소지 행위 및 흡연행위
- ⑥ 자연생태계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계곡에서의 목욕 및 세탁행위
- ⑦ 자연공원의 보전, 이용, 안전 그밖의 관리를 위하여 현저히 장애가 된다고 인정되는 영업 또는 행위

2-2. 과태료 부과기준

위 반 내 용	과태료금액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1. 총 또는 석궁을 휴대하거나 그물을 설치한 자	100만원	150만원	200만원
2. 지정된 장소 밖에서 상행위를 한 자 가. 차량, 손수레 등 이동장비를 이용하여 상행위를 한 자 나. 가목 이외의 방법으로 상행위를 한 자	100만원 50만원	150만원 75만원	200만원 100만원
3. 영업 그 밖의 제한 또는 금지된 행위를 한 자 가. 제한이나 금지된 영업을 한 자	50만원	100만원	150만원
나. 제한이나 금지된 행위를 한 자 - 사행행위 이와 유사한 행위 - 자연자원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톱·도끼 등의 도구를 지니고 입장하는 행위 - 소음을 유발할 수 있는 도구를 지니고 입장하는 행위 - 개·고양이 등 동물을 데리고 입장하는 행위 - 인화물질을 소지하거나 흡연행위 - 계곡 내 목욕 또는 세탁행위 - 자연공원의 보전·이용·안전 그 밖의 관리를 위하여 현저한 장애가 된다고 인정하는 행위	20만원	40만원	60만원
4. 공단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한 자	100만원	100만원	100만원
5. 지정된 장소 밖에서 야영행위를 한 자	50만원	50만원	50만원
6. 제한되거나 금지되는 지역에 출입하거나 차량의 통행한 자	50만원	50만원	50만원
7. 정당한 사유 없이 출입 또는 사용 등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30만원	40만원	50만원
8. 금지된 행위를 한 자(주차행위, 취사행위, 오물투기, 외래동물 방사)	10만원	10만원	10만원
9. 입장료 또는 사용료를 내지 아니하고 자연공원에 입장하거나 공원 시설을 이용한 자	10만원	10만원	10만원

3. 탐방로(백두대간)안내

- 국립공원 탐방로는 공원시설로서 자연생태계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해 공원계획에 탐방로 노선 및 규모를 반영하고, 이를 관보에 고시하여 관리하고 있음을 알려드리오며, 국립공원 탐방로(백두대간)를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 아울러, 탐방객 여러분께서는 국립공원의 자연생태계 보전 및 탐방객 안전을 위하여 고시한 탐방로가 아닌 구간은 출입을 통제하고 있으니, 이 점을 유념하시고 국립공원을 탐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탐방로가 아닌 구간은 자연공원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출입을 금지하고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출입시 과태료 50만원 부과)



백두대간 현황

공원명	구분	구간명	연장 (km)	비고
오대산	탐방로 구간	노인봉~두로봉	12.30	개방
	탐방로가 아닌구간	두로봉~신배령~1210고지 인근 공원경계	5.10	출입금지
		노인봉~매봉	8.70	출입금지

※ 노인봉~두로봉 구간 중 특별보호구 시행지역인 진고개~동대산(1.7km)구간은 출입금지 지역임.

백두대간이란?

백두대간(白頭大幹)을 글자 그대로 풀어보면 '백두산에서 비롯된 큰 산줄기'라는 뜻으로 한반도의 뼈대를 이루는 산줄기를 말합니다. 즉, 백두산에서 남으로 맥을 뻗어 원산·낭림산·금강산·설악산·오대산을 거쳐 태백산에 이른 뒤 다시 남서쪽으로 소백산·월악산·속리산·덕유산을 거쳐 지리산에 이릅니다. 이 땅의 대표적인 산들을 망라하고 있는 셈입니다. 행정구역으로는 함경도·평안도·강원도·경상도·충청도·전라도에 걸쳐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배우고 있는 산맥체계로 보면 마천령, 함경, 낭림,(추가령 지구대), 태백, 소백 산맥의 일부 혹은 전부를 연결해 놓은 것과 같습니다. 지도상 거리로는 전 구간인 백두산에서 지리산까지가 1,625km이고, 남한 구간(지리산에서 향로봉)은 690km에 이르는 장대한 산줄기입니다. 우리 고유의 산에 대한 관념과 신앙의 중심에 자리하며, 두만강·압록강·한강·낙동강 등을 포함한 한반도 대부분의 강의 발원지이기도 합니다.



한반도의 생활권을 동과 서로 나누는 경계이고, 생태계의 중심축이 되어 이 땅의 문화, 사회, 역사, 환경 등을 이해하는 바탕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백두대간은 한반도의 자연지리적 상징이면서 동시에 한민족의 인문적 기반이 되는 산줄기입니다.

4. 국립공원 특별보호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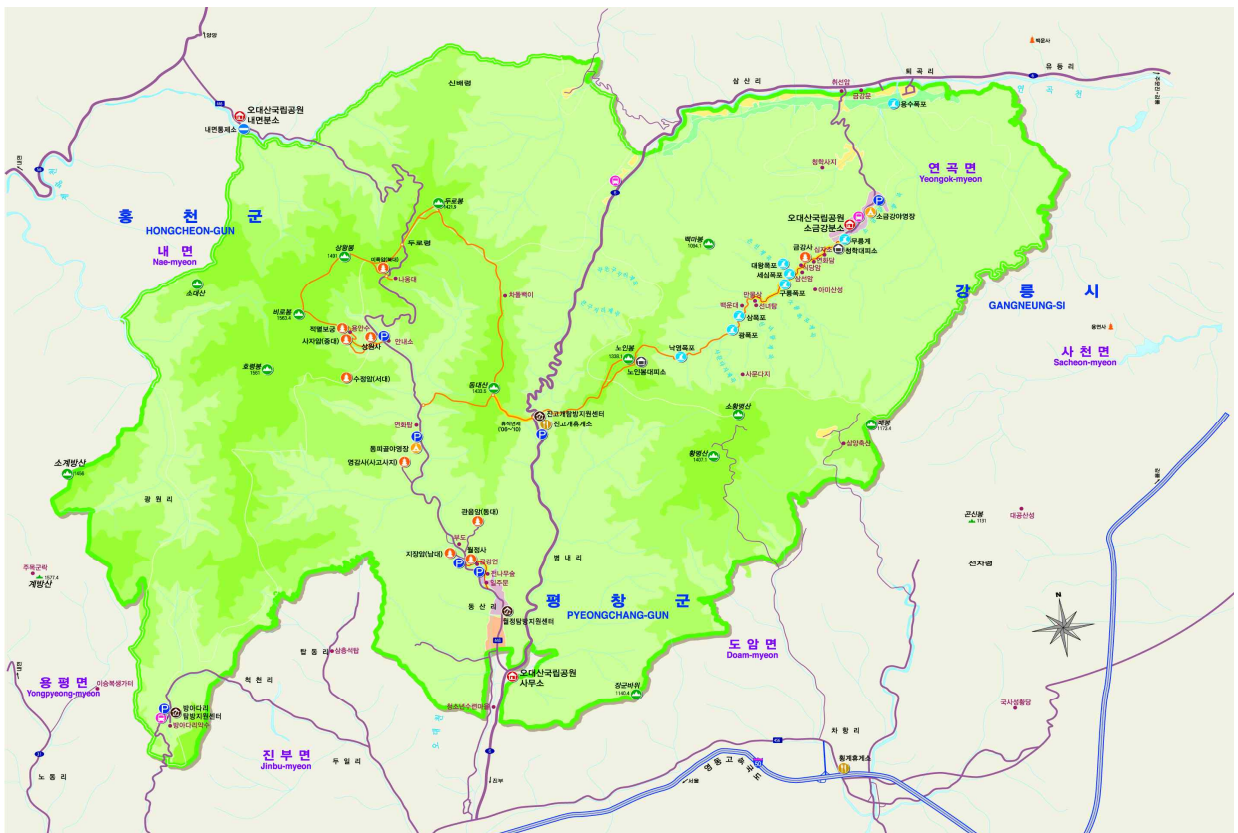
국립공원 특별보호구는 국립공원내 보호할 가치가 높거나 인위적·자연적 훼손으로부터 보호 필요성이 있는 야생동물서식지, 야생식물군락지, 습지, 계곡 등 주요자원 분포지역에 대하여 출입통제 등 행위를 제한하는 제도

※ 법적근거 : 자연공원법 제28조(출입금지 등)

🌀 특별보호구 대상지 현황 🌀

사무소명	대상지	유형	규모(㎡)	거리(km)	시행목적	시행기간	탐방여부	
							가능	불가
오대산	월정사 입구 일원 (탐방로 제외)	야생식물 군락지	1,000		야생식물 군락지 보호	2026년까지	○	
	진고개-동대산	자연휴식년제 (탐방로)		1.7	훼손 탐방로 복원	2011년까지		○

IV. 탐방로 현황



<오대산국립공원 탐방안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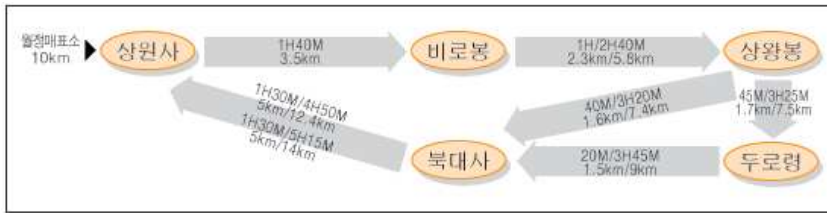
1. 반나절 등산 코스

○ 상원사~비로봉코스



소요시간	거리	난이도	식수	화장실	대피소	주차
1시간40분	3.5km	중	○	○	×	○

○ 상원사~상왕봉코스



소요시간	거리	난이도	식수	화장실	대피소	주차
4시간50분	3.5km	상	×	○	×	○
5시간15분	14km					

○ 진고개~두로령코스



소요시간	거리	난이도	식수	화장실	대피소	주차
4시간40분	10km	중	×	○	×	○

○ 동피골~진고개코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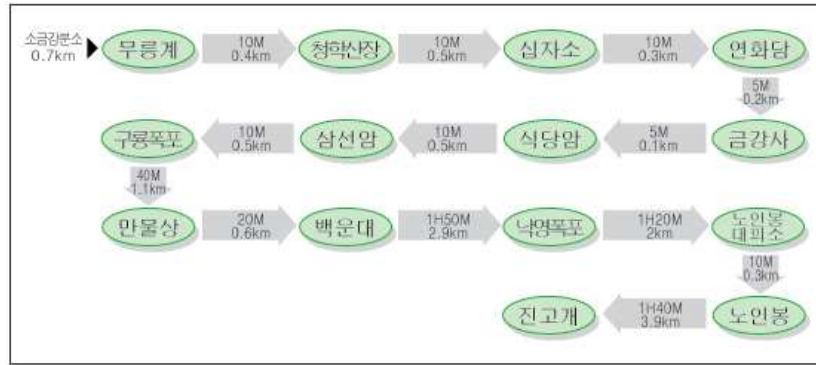


소요시간	거리	난이도	식수	화장실	대피소	주차
2시간30분	14.4km	중	×	○	×	○

※ 진고개~동대산 구간은 국립공원 특별보호구 시행으로 출입통제(2011년까지)

2. 당일 등산 코스

○ 무릉계~진고개코스



소요시간	거리	난이도	식수	화장실	대피소	주차
7시간	13.3km	상	○	○	○	○

V. 국립공원 시설사용료

1. 주차료

시설명칭	차종	사용료		비고
		당일	체류	
주차장	경차	2,000	4,000	
	승용차(비영업용)	4,000	8,000	
	버스(비정기버스)	6,000	12,000	

2. 야영장 사용료

시설명칭	구분	사용료			비고
		소형텐트 (3인이하)	중형텐트 (4인이상 10인미만)	대형텐트 (10인이상)	
야영장	1일	3,000	4,500	6,000	

3. 촬영료

시설명칭	구분	사용료			비고
		오전	오후	야간	
영화, TV드라마 CF(광고)촬영	1회당	120,000	120,000	180,000	
VTR촬영	1회당	60,000	60,000	60,000	
사진 촬영	1년	600,000			1인기준

VI. 해설프로그램 안내

늘 푸른 키 나무 산림욕장 '전나무 숲' 자연 해설

장 소 : 월정사 전나무 숲 자연관찰로

시 간 : 3월~11월

주요내용 : 숲이 주는 고마움, 야생화관찰, 자연물을 이용한 여러 가지 놀이 등

천년 고찰의 신비 '월정사' 역사 해설

장 소 : 월정사 경내

시 간 : 3월~12월

주요내용 : 월정사의 역사, 탐이 갖는 의미, 나옹스님에 얽힌 전설 이야기 등

상원사 역사·문화 해설

장 소 : 상원사 경내

시 간 : 5월~10월

주요내용 : 상원사의 역사, 세조와 얽힌 전설이야기, 상원사 동종 등

작은 금강산 '소금강' 자연 해설

장 소 : 소금강자연관찰로

시 간 : 3월~11월

주요내용 : 소금강의 유래, 신기한 소나무, 재미있는 이끼 등

탐방프로그램 참여방법

국립공원 홈페이지-탐방해설예약 서비스 이용 ☞ www.odaeknps.or.kr

오대산사무소 전화 및 탐방지원센터에서 신청 ☞ 033-332-6494

VII. 별표

1. 문화재관람료

구 분	성 인	청소년	어린이
개 인	2,500	900	400
단 체	2,200	800	300

2. 월정사 Templestay

프로그램	참가대상	수련기간	참가비	비 고
가족과 함께하는 산사체험	가족	1박2일(토, 일)	15만원	
산사의 하루	성인	1박2일	주말-5만원 주중-4만원	
일반인 여름 수련회	성인	4박5일(8월)	12만원	
월정사 성보박물관 여름 어린이 박물관 교실	초등학생	2박3일(7월)	7만원	
어린이 여름 불교학교	초등학생	1박2일(7월)	6만원	

※ 매년 기수에 따라 조정

3. 교통편

가. 시내버스

① 진부~오대산 구간 시내버스

행선지	진부발	중점발	소요 시간	요 금
월정사	06 : 20	06 : 35	15분	1,420원
월정사	07 : 40	07 : 55		
상원사	08 : 30	09 : 20	35분	2,320원
상원사	09 : 40	10 : 30		
월정사	10 : 50	11 : 10	15분	
상원사	11 : 50	12 : 40	35분	
상원사	12 : 50	14 : 00		
월정사	14 : 20	14 : 35	15분	
상원사	15 : 30	16 : 20	35분	
상원사	16 : 40	17 : 20		
월정사	18 : 30	19 : 00	15분	
월정사	19 : 40	19 : 55		

② 소금강 구간 시내버스

행선지	강릉발	소금강발	비 고
소금강	05 : 15	06 : 40	<소요시간> 1시간 <요 금> 950원
	06 : 00	07 : 25	
	07 : 00	08 : 25	
	08 : 00	09 : 25	
	10 : 00	11 : 25	
	11 : 00	12 : 25	
	13 : 00	14 : 25	
	14 : 00	15 : 25	
	16 : 00	17 : 25	
	17 : 00	18 : 25	
	18 : 00	19 : 25	
	19 : 15	20 : 40	
21 : 00	22 : 25		

③ 방아다리 구간 시내버스

행선지	진부발	중점발	소요 시간	요 금
척 천	06 : 20	07 : 05	20분	1,430원
약 수	08 : 40	09 : 20		
약 수	11 : 20	11 : 40		
약 수	13 : 30	13 : 50		
약 수	15 : 20	15 : 40		
척 천	18 : 30	18 : 45		

나. 시외버스

① 시외버스(진부행)

구분	접근체계	배차간격	소요시간	요금	비고
서울	서울 → 진부(강릉행)	40분	2시간50분	11,600원	원주 → 진부 40분 / 1시간 ▶ 첫차 07:00 ▶ 막차 19:40 (요금 4,800원)
		첫차 06:32 막차 20:05			
부산	부산 → 원주 → 진부 (총 5시간20분 소요)	부산 → 원주		19,800원	
		1시간	4시간20분		
		첫차 07:20 막차 18:30			
대구	대구 → 원주 → 진부 (총 3시간30분 소요)	대구 → 원주		12,400원	
		1시간	2시간30분		
		첫차 07:00 막차 19:00			
광주	광주 → 원주 → 진부 (총 5시간 소요)	광주 → 원주		15,900원	
		1시간40분	4시간		
		첫차 07:10 막차 18:40			
대전	대전 → 원주 → 진부 (총 3시간 소요)	대전 → 원주		9,900원	
		30분	2시간		
		첫차 08:01 막차 18:00			

② 시외버스(진부발)

구분	접근체계	배차간격	소요시간	요금	비고
진부	진부 → 동서울	1시간	2시간50분	11,600원	
		첫차 07:55 막차 20:45			
	진부 → 원주	1시간	1시간	4,800원	
		첫차 07:20 막차 18:30			
	진부→횡성→양평→상봉	07:05(둔내경유) 14:45 16:55(둔내경유)	3시간	14,100원	횡성-4,900원 양평-9,700원
	진부→횡성→홍천→춘천	10:15 19:15	2시간50분	11,500원	홍천-8,000원
	진부→평창→영월→제천	06:55 07:30(평창) 08:20 09:30 11:15 14:35 16:20 18:55 20:55(평창)	2시간50분	9,900원	평창-4,100원 영월-7,900원
	진부 → 강릉	30분	50분	3,400원	
		첫차 07:40 막차 21:30			

③ 시외버스(강릉행)

구분	접근체계	배차간격	소요시간	요금	비고
서울	동서울 → 강릉(시외)	수시운행	3시간	11,700원	
		첫차 06:31 막차 23:00			
부산	부산 → 강릉(시외)	1시간	4시간20분	6시간	
		첫차 06:58 막차 23:30			
대구	북부 → 강릉(시외)	수시운행	3시간30분	19,000원	
		첫차 07:00 막차 19:00			
	동부 → 강릉(시외)	수시운행	5시간30분	23,500원	
		첫차 07:10 막차 15:03			
광주	광주 → 강릉(고속)	수시운행	5시간30분	24,200원	
		첫차 07:00 막차 17:30			
대전	대전 → 강릉(고속)	1시간	3시간30분	일반 13,900원 우등 20,600원	
		첫차 08:01 막차 18:00			

다. 기차

구분	노선	배차간격	소요시간	요금
서울	청량리→강릉	1시간	6시간40분	20,100원
		첫차 08:00 막차 23:30		
	청량리→원주	2시간	6시간30분	6,100원
		첫차 06:25 막차 23:30		
부산	부산→강릉	09:10	8시간	26,400원
	부산→원주	22:15	6시간30분	21,700원
대구	대구→강릉	23:42	7시간	21,200원
대전	대전→강릉	07:35	7시간	20,400원

라. 자가운전

① 월정사지구

구 분	접근체계 (고속도로 경유)	소요시간
서울	경부(신갈분기점)→영동(진부IC)	2시간30분
부산	경부(금호분기점)→중앙(만중분기점)→영동(진부IC)	5시간
대구	중앙(만중분기점)→영동(진부IC)	3시간30분
광주	호남(회덕분기점)→경부(남이분기점)→중부(호법분기점) →영동(진부IC)	5시간
대전	중부(호법IC)→영동(진부IC)	3시간

▶ 진부IC-오대산국립공원(월정사지구)

- 진부IC → 1.5km지점에서 좌회전 → 2km지점에서 좌회전 - 월정사 (7km) - 상원사 (8.8km)

▶ 진부IC-오대산국립공원(방아다리지구)

- 진부IC → 1.5km지점에서 좌회전 → 500m 직진후 좌회전→방아다리약수 (10km)
- 영동고속도로 → 속사IC → 홍천방면 31번 국도 - 2.1km → 8번 군도 갈림길에서 군도로 진입(우회전) - 5.8km → 방아다리 약수
- 중앙고속도로 남원주IC(만중 분기점) → 영동고속도로 → 속사(또는 진부IC) → 방아다리약수

② 소금강지구

구 분	접근체계 (고속도로 경유)	소요시간
서울	경부(신갈분기점)→영동(북강릉IC)	3시간30분
부산	경부(금호분기점)→중앙(만중분기점)→영동(북강릉IC)	6시간
대구	중앙(만중분기점)→영동(북강릉IC)	4시간10분
광주	호남(회덕분기점)→경부(남이분기점)→중부(호법분기점)→ 영동(북강릉IC)	6시간
대전	중부(호법IC)→영동(북강릉IC)	4시간

▶ 진부IC-오대산국립공원(소금강지구)

- 진부IC진입 → 월정사 방향 → 병안삼거리(오대산사무소 위치)에서 주문진방향
→ 진고개 → 소금강입구
- 북강릉IC진입 → 주문진(연곡)방향 6번국도(소금강입구 방향)
- 현남IC진입 → 주문진(연곡)방향 6번국도(소금강입구 방향)

- 목 차 -

I . 오대산국립공원 소개

1. 일반현황
- 2.공원자원
 - 가. 경관
 - 나. 야생 동·식물
 - 다. 역사·문화

II . 각 지구별 고객접점 탐방

- 1.월정사지구
 - 가. 경관
 - 나. 사찰
 - ①월정사
 - ②상원사
 - ③영감사와 사고지
 - ④오대암자
 - ⑤적멸보궁
- 2.진고개지구
- 3.방아다리지구
- 4.내면지구
- 5.소금강지구

III.알고감시다!!

1. 공원탐방 준수사항
- 2.탐방로(백두대간) 안내
- 3.국립공원 특별보호구

IV. 탐방로 현황

- 1.반나절 등산 코스
2. 당일 등산 코스

V. 국립공원 시설사용료

1. 주차료
2. 야영장 사용료
3. 촬영료

VI.해설프로그램 안내

VII. 별표

1. 문화재관람료
2. 월정사 템플스테이
3. 교통편
 - 가. 시내버스
 - 나. 시외버스
 - 다. 기차
 - 라. 자가운전

